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을 중심으로

이정춘**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은규***

(중앙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진숙****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

박상호*****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사)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유형과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학업적 자기 효능감, 미디어 능력 그리고 학업성적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능력향상 추구', '자율적 교육 추구', '시대 편승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BS0164). 이 글의 부족한 부분을 진지하게 지적하고 비판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iamrhic@hanmail.net

*** kimegy@hanmail.net

**** jskang1@cau.ac.kr

***** magyar72@empal.com

추구,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중에서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서는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동기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 능력에는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자율적 교육 추구', '시대 편승 추구' 등 5개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적에는 '자율적 교육 추구'와 '새로운 지식/교육추구'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미디어 능력'보다 학업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디어 교육은 어느 정도 새로운 수업방식과 능력향상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업성적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 함양에는 미디어 교육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미디어 교육, 학업적 자기 효능감, 미디어 능력, 학업성적

1.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기늙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의 정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는 '지금 여기'에 없어도 어디서든 소통의 창을 열어주는 빠른 속도의 메시지 운반자이다. 이러한 미디어들이 사적인 공간과 사색의 시간을 잠식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겠지만, 일단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점차 파편화된 수많은 정보를 자신의 지식으로 체계화하고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 성인들뿐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학생들 역시 다양한 매체 환경 속에서 점차 독립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학습을 계획, 수행,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이러한 능력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학교교육에서도 디지털 미디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기존 교사-학생 간의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구조가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 구조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지만, 현재 학교교육의 현실은 급변하는 사회와 매체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보사회와 관련된 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특정한 방식의 지식정보교육 측면에 집중되어 있고, 개개인이 잠재적으로 지닌 다양한 지적, 정서적, 정의적, 신체적 ‘능력들(faculties)’을 어떻게 최대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관심한 상태로 보인다. 따라서 점차 정서가 매마르고 신체적 잠재력은 퇴화된 채로 오직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기술에만 매달리는 ‘인지 기계적 인간형’이 확산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원용진, 2005).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은 대체로 주입식교육체제를 통한 입시교육중심이라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정춘, 2005). 이러한 문제 속에서 보다 새로운 공교육의 한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미디어 교육이다.

기본적으로 학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발달을 장려할 수 있고, 가능한 모든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교육의 현장이다. 이러한 위상에서 볼 때,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위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잠재적 능력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는 더 이상 분리 사고할 수 없는 소통과 행위의 매개체가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전수하는 전통적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과 컴퓨터 등의 뉴미디어에 익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율적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 또한 학교 미디어 교육이다(이정춘, 2005).

일반적으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익히게 하는 ‘teaching about media’라는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미디어가 작동하는 방식, 미디어의 구성,

미디어가 낼 수 있는 사회적 효과, 미디어 내용제작의 과정 등을 가르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다. 그 같은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낯설게 만들어 미디어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혹은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존재임을 알게 하자는 강한 목적을 띤 교과목이다. 그러나 미디어 교육에 대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미디어를 익히게 하는 목적 외에도 ‘teaching through media’, 즉 미디어를 주제 혹은 소재로 삼아 교실에서 교육 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원용진 외, 2003).

실질적인 공교육하의 중·고등학교 미디어 교육은 입시상황에서 미디어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미디어 교육의 활용 또는 효과적 차원의 연구가 교육학, 심리학, 정보처리학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미디어 교육 또는 e-러닝(e-learning) 활용이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능력(수업·교류·적응 등) 함양을 다루고 있지만 어느 정도 학업(성적)에 귀착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의 목표에는 크게 부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는 미디어 능력이라는 개념을 측정하려고 한다. 즉,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디어 지식, 이용, 비평, 제작 능력 함양이다.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의 내·외적 상황에 부합하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의 장을 개척할 수 있다. 즉, 학교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이 더욱 개발될 수 있다. 이들은 학교 안에서 학업상황, 대화상황, 상호작용 상황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매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평생 동안 지속되는 학습과 발달과정에서 이러한 미디어 능력을 계속적으로 스스로 획득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에서부터 미디어 능력 개발을 위한 기본 바탕을 육성해 주어야 한다(문혜성, 2004: 128).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하는데 있다. 우리나라

입시교육체제의 교육현실상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성적을 무시한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 그리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신문방송학 분야에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선진 미디어 교육 사례의 소개, 국내 미디어 교육 방향, 미디어 교육 포맷과 시스템과 국내 미디어 교육 사례 등 미디어 교육에 관한 포맷과 체제 중심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 분야에서 경험적, 실증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여 보다 풍부한 현상분석 방법과 논의의 활성화하려 하였다. 즉, 국내 신문방송학 분야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실증적 서베이 연구(미디어 교육 실태 및 이용 동기)가 미진하였기 때문에, 중등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베이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측정을 근간으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을 측정하고,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측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미디어 교육 관련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미디어 교육의 이용과 충족 접근

이용과 충족 접근(uses and gratifications approach)은 미디어의 기능적 특성과 미디어 소비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로 이용되고 있다. 수용자가 어떤 이용 동기를 가지고 미디어를 소비하며, 그런 행위가 어느 정도 만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주요하게 사용된다. 이용과 충족 이론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발맞추어 발전하여 왔다

(Elliott & Rosenberg, 1987). 즉, 전통적인 또는 초기의 이용과 충족 연구들은 TV시청 동기 중심이었지만, 새로운 매체인 VCR, 케이블TV, 인터넷, 온라인 게임, 휴대폰 등이 대두되면서 매체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로 변모하고 있다.

먼저, TV시청동기에 관한 전통적인 이용과 충족 연구에서는 이용자들은 정보추구, 여가선용, 현실도피와 같은 심리적 욕구를 주요 TV시청동기로 측정하였다. 블룸러(Blumler, 1979)는 인지적 동기(정보추구 및 획득), 오락적 동기(기분전환 및 현실도피), 개인적 정체성 동기 등을 통해서 TV시청동기를 조사하였다. 이후 TV 시청동기에 대한 주요 연구를 통해서 주요한 시청동기는 ‘취기 위해서’, ‘오락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등으로 나타났다(Conway & Rubin 1991; Rubin & Perse, 1987; Rubin, 1981/1993). 또한 VCR, 케이블TV와 인터넷 등의 등장에 따른 주요 매체 이용 동기는 ‘정보추구’, ‘오락’, ‘시간 때우기’, ‘외로운 달래기’, ‘습관적으로’, ‘쌍방향성’, ‘사회성’ 등으로 나타났다(Perse & Courtright, 1993; Ferguson & Perse, 2000; 김유정, 2005; 은혜정·나은영, 2002). 그리고 휴대폰과 무선인터넷의 등장으로 따른 주요 매체 이용 동기는 ‘의사소통’, ‘즉시성’, ‘이동성’, ‘채면’, ‘정보습득’, ‘흥미/휴식’, ‘패션’, ‘시간관리’, ‘긴장 해소’, ‘정보 탐색’, ‘응급’ 등으로 나타났다(박종민, 2003; 배진한, 2002; 이인희, 2001; 한상필·안보섭·박명진, 2005)

대체로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미디어 교육 선진국 사례를 통한 개념과 역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최근에는 사회 환경에 따른 미디어 교육의 역할 변화적 차원의 질적 방식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김양은, 2005). 미디어 교육에 관련된 이용과 충족 연구는 주로 이러닝(e-learn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매체 이용 동기는 성인을 대상으로 도구적 또는 기술적 측면과 사용 용이성 등으로 나타났다(류지현·김민정·고기정, 2005; 문혜성, 2004; 박광순, 2006; 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이웅규·이종기, 2006). 주요 연구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문혜성(2004)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정보기능’, ‘오락과 휴식기능’, ‘통합과 여론형성의 기능’, ‘시간 채우기’, ‘미디어에 의한 삶의

질적 향상, ‘정보화의 선도자로서 인정받기’, ‘인간 사이의 대리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으며,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미디어 능력이 배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류지현·김민정·고기정(2005)은 기업의 이러닝 연구에서 ‘정보제공’, ‘적극적 활용’, ‘편리성’, ‘피드백’, ‘유용성’, ‘학습관리’ 등의 주요한 이용 동기를 도출하였다. 이응규·이종기(2006)는 이러닝 이용 동기를 (서비스)품질, 유용성, 사용용이성 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이러닝 수용에 관한 이석용·서창갑·김유일(2006)의 연구에서는 ‘유용성’, ‘편의성’, ‘재미’를 주요한 이용 동기를 측정하였다. 이들의 연구보다 이러닝에 관한 구체적인 이용 동기 연구를 한 박광순(2006)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러닝 이용 동기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41개 문항을 측정하였으며, ‘학습정보교류 용이성’, ‘학습과정 용이성’, ‘도구적 편리성’, ‘학습공간의 개인성’, ‘공간이동의 편리성’, ‘시간적 편리성’, ‘학습규칙의 자유성’, ‘평가방법의 편리성’, ‘일과의 병행성’, ‘비의도성’ 등 10개의 이용 동기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연구하였으며, 이들이 학습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는지에 관한 이용 동기 유형을 알아보려 하였다.

지금까지 제시한 이용과 충족 연구는 정리하면, TV시청 동기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시청동기 분석에 사용된 질문 항목의 수나 특성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는 인자 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Rubin, 1993; 김정기, 2000/2002). 그러나 연구 대상으로서의 매체별(TV, 인터넷, 휴대폰) 차이에 따라서 또는 TV프로그램의 수준(매체별, 장르 등)에 따라서 이용 동기의 구체성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cker, 1979; Palmgreen, Wenner & Rayburn, 1980; 김유정, 2005; 김정기, 1995; 박종민, 2003).

2) 미디어 교육, 효능감과 학업성적

반두라(Bandura, 1986)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주어진 상황에서 원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행위를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 판단 또는 믿음”으로 정의하였다. 즉,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여러 가지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효능감의 수준은 개인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선정과 노력, 인내의 정도, 그리고 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의 노력하는 정도나 장애와 불쾌한 경험에 대해 버텨내는 정도를 결정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얼마의 노력을 해야 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경우 노력의 지속성을 발휘하는지 등의 행동의 통제에 대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평가의 한 형태인 것이다.

자기 효능감은 고정적인 인성 혹은 특성이 아니며, 한 번 판단된 자기 효능감은 계속적으로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학습과제에 투여하는 노력 및 지속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적절한 계획에 의해 경험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은 낮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학생에 비해 실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높은 성취를 할 수 있다(Collins, 1982).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단일한 기대나 신념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귀인 등은 자기 효능감의 구성요소로 각각 상이한 상황에서 영향을 미친다(신중호·신태섭, 2006). 자기 효능감은 행동과 사고유형 및 정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는 그 상황을 회피하나,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을 갖고 대처 행동을 수행한다(추미애·박아청, 2006).

자기 효능감은 행동에 투여되는 노력의 양(量)과 장애, 혐오경험을 무릅쓰고 행동이 지속되는 정도를 결정하는데, 효능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노력의 양과 지속성은 증가한다.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포기하지만, 강한 효능감을 지닌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투여한다(Bandura, 1997). 염시창·박현주(2005)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교우관계, 학업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쿠르츠와 볼코스키(Kurtz & Borkowski, 1984)는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들은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업성적인 높게 나타났다(Shunk, 1985; 이명자·송영명, 2005).

전통적으로 교육심리학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교과목 숙달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확신하고 자신감은 개인적 목표를 향상시킴으로써 학업성취를 촉진시킨다고 보고 있다(Bandura, 1997). 자기 효능감은 학생들의 학습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요 연구에서 나타난다(Bandura, 1997; Shunk, 1985; 이응규·이종기, 2006; 추미애·박아청, 2006). 학업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은 학업에 관한 동기와 학습의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꾸준히 부각되었다(Bandura, 1997; Smith, Wakely, Kruif & Swartz, 2003; Zimmerman, 2000; 김아영, 2004; 박병기·채선영, 2005; 이명자·송영명, 2005). 자기 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노력의 유지, 장애상황에서 학업지속, 인지적 활동의 조정, 정서반응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86/1997; 김아영, 2003).

외국의 경우 자기 효능감 척도개발의 주요한 경향은 맥락, 영역, 과제, 문제 등에 따라서 다양한 특수성의 수준에서 학업수행의 내용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초기에는 반두라(Bandura, 1976)의 논의를 근간으로 틱톤과 워싱턴(Tipton & Worthington, 1984) 등은 일반적인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교육학과 교육심리학적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연구되고 있다. 반두라(1986)에 의하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다. 대체로 국내에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과제를 요구되는 수준에서 수행하려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지식과 수행을 매개하는 중요한 동기변수이다. 즉,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나 신념을 지칭한다(장윤옥, 2005; 이정규, 2005). 이러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은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고 보았고, 많은 연구에서 특정한 과제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수행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Bandura, 1986; Schunk, 1982).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수행 또는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차정은, 2003; 김아영, 2004; 이명자·송영명, 2005).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학업 성적에 관한 문제를 무시한 연구가 힘든 상황이며, 대체로 종속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관계보다는 효능감이 매개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이응규·이종기, 2006), 학업의도와 만족 등에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유용성)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광순, 2006; 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미디어 능력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통합된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논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 중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의 상반된 논쟁 축이 형성되어 왔다. 이 양대 축은 미디어 능력의 핵심을 미디어 조작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숙련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행위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갈라진다. 이것은 곧 미디어와 주체의 행위를 보는 입장의 차이와 연관된다. 전자가 미디어의 능력을 미디어 산업의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개인의 취업용 자격증명을 위한 기능적 숙련성으로 규정한다면, 후자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실현과 개인 및 집단의 성숙을 지향하는 능동적 행위능력으로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 전자가 주로 미디어 능력에 관한 기술적 접근(Winterhoff-Spurk, 1997; Heller et al., 1999)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후자의 경우는 미디어 사회학과 행동지향 미디어 교육학적 접근(Baacke, 1996; Schorb, 1997; Aufenanger, 1997) 속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강진숙, 2005b).

미디어 능력 개념은 미디어(Medien)와 능력(Kompetenz)의 조합어로서 미디어 이용자 및 미디어 관련 기구의 미디어 선용 능력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 바이케에 의해 미디어 교육학적 담론에서 논의된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

은 이후 1990년대의 학계와 정계, 그리고 산업계에 신선한 자극을 준 ‘미디어 능력(Medienkompetenz)’의 발전을 추동한다. 이 과정에서 바아케는 자신의 교수임용자격논문인 “커뮤니케이션과 능력: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교수법의 기초(Kommunikation und Kompetenz: Grundlegung einer Didaktik der Kommunikation und ihrer Medien)”(1973)에서 하버마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강진숙, 2005a).

바아케(Baacke, 1996)에 의하여 촉발된 ‘행위지향 미디어 교육(Handlungsorientierte Medienpädagogik)’은 능동적 미디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즉 미디어 현상에 대한 비판적 해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미디어 교육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능동적 행위를 강조하는 미디어 교육 방법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독일 교육환경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당시 학교 안팎의 교육 분야에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고 청소년 연구 및 청소년 운동에서부터 여가시간 및 문화연구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의 역할과 그 중요성은 점차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아케는 미디어의 이용을 ‘사회적 행위’로 간주하고, 행동지향 미디어 교육을 인간의 미디어 능력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교육방법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 지향점은 미디어와의 적극적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생활 세계를 구성하고, 미디어의 능동적, 창의적 이용과 구성/제작을 통해 주어진 현실에 변화를 가하는 데 있다(강진숙, 2005b).

이러한 정의에 따라 바아케(Baacke, 1997)는 미디어 능력을 다음 네 가지로 범주로 구분한다. 우선 미디어 비평의 범주이다. 여기에는 문제의식과 분석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분석적 차원, 자기 성찰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찰적 차원 그리고 사회적 책임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윤리적 차원이 하위범주로 포함된다. 두 번째는 미디어학 혹은 미디어 지식의 범주이다. 이 범주는 미디어 지식과 정보습득 능력에 관심을 두는 정보적 차원과 미디어 이용의 숙련성을 강조하는 도구적·질적 차원으로 구분된다. 세 번째는 미디어 이용의 범주로서 두 가지 하위 범주를 지닌다. 즉 능동적 미디어 이용을 위한 수용과

적용의 차원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는 전자은행이나 전자상거래, 그리고 사이버토론 등을 가능케 하는 상호작용적 능력에 관한 차원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구성/제작의 범주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 체계를 개선하거나 대안 미디어를 구성할 수 있는 혁신적 차원과 미디어를 통해 미학적 형상화를 꾀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창의적 차원으로 구성된다(강진숙, 2005b).

하나의 특수한 행동능력으로서 미디어 능력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미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능력이다. 이들이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나 그 밖의 여러 사회기관은 이들이 사회적 행동을 하는 영역이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와 행동,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행동양식을 배울 수 있다. 특히 학급집단은 또래집단의 형태 속에서 ‘공동의 작업과 연습’, ‘차별화와 안정성’ 그리고 ‘여러 유형의 선택적 미디어 행동 모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이상적 영역이다. 각각의 학급은 하나의 학습체계로서 간주될 수 있다(문혜성, 2004: 130).

우리나라의 미디어 교육 분야연구에서 중·고등학생들 학업 능력향상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의 측정과 함양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어느 정도 학업성적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 교육의 취지에는 정확히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미국 중심)뿐만 아니라 미디어 능력(독일 중심) 개념을 차용하여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뛰어넘어서 미디어 비평, 미디어 지식, 미디어 이용, 미디어 구성/제작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고등학생들의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대체로 미디어 교육에 관한 서베이 연구들은 대체로 독립변인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측정하고 있으며(류지현·김민정·고기정, 2005; 박광순, 2006; 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이웅규·이종기, 2006), 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 측정되었고(Schunk, 1982; 김아영·차정은, 2003; 김아영, 2004; 이명자·송영명, 2005), 학업성적은 종속변인으로 연구되었다(이주화·김아영,

2005; 이명자·송영명, 2005; 장윤옥, 2005).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그들의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 그리고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연구문제 1>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연구문제 2>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은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설계와 표본구성

미디어 교육에 관한 이용 동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지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4곳에서 507명을 설문하였고,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189명(중학생 80명, 고등학생 109명)을 조사하였다. 즉, 미디어 교육의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 696명(남성: 281, 여성: 415)을 설문하였으며, 조사기간은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중학교 1학년이 1명(0.1%), 2학년 39명(5.6%), 3학년 40명(5.7%)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1학년이 289명(41.5%), 2학년 326명(46.8%), 3학년이 1명(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 수업형태는

정규수업형태가 477명(68.5%), 특별활동형태가 109명(15.7%), 재량활동형태가 78명(11.2%)이었으며, 미응답이 32명(4.6%)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조작적 정의

(1)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중·고등학생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서 이용 동기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우선, TV시청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일반 항목들을 추출하였으며(Rubin, 1984/1991; Perse & Rubin, 1988; 김정기, 1998/2002), 인터넷·휴대전화 등 매체 이용 동기(김유정, 2005; 박종민, 2003; 배진한, 2002; 이인희, 2001; 한상필·안보섭·박명진, 2005)와 이러닝(e-Learning) 이용 동기 관련 선행연구(류지현·김민정·고기정, 2005; 박광순, 2006; 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이웅규·이종기, 2006)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추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미디어 교육을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용하는지에 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조사하였다. 이 중에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한 항목을 제외시킨 총 28개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질문 문항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했다. 파일럿 조사(pilot study)는 서울 소재 대학의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n=30, 남=15, 여=15)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파일럿 조사 이후 정보/지식 동기(6문항), 기술혁신 동기(5문항), 편리성 동기(4문항), 이용 용이성 동기(4문항), 학습욕구 동기(7문항), 의사소통 동기(2문항) 등으로 구성된 총 28개의 TV토론 이용 측정항목을 무작위로 배열한 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추출하였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에 이용되는 미디어는 신문, TV(다양한 프로그램),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 영상촬영기기(캠코더, 디카 등), 모바일 기기(PSP, PMP 등)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를 조사하였다.

(2) 학업적 자기 효능감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쳐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Bandura, 1986; 김명숙·정대련·이종희, 2002). 김아영·박인영(2001)¹⁾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척도를 근간으로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김아영·차정은, 2003; 박병기·채선영, 2005; 신종호·신태섭, 2006; 염시창·박현주, 2005; 이주화·김아영, 2005)를 근간으로 “나는 계획된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잡념을 버리고 전념할 수 있다”, “나는 계획했던 학습시간이 되면 놀던 것을 중지하고 학습을 시작할 수 있다”,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의 학습방법을 나에게 맞게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정리 정돈된 학습환경(공부방, 책상 정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나 자신을 잘 파악하고 있다”, “나는 공부에 방해되는 것(컴퓨터, TV, 휴대폰 등)은 꺼놓거나 치워 놓을 수 있다”, “나는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라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7문항을 통해서 5점 척도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척도의 평균값($M=2.95$, $SD=.72$)으로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1) 이들의 ‘한국형 학업적 자기 효능감 검사(ASEI: academic self-efficacy Inventory)’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안정적이고 개인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리커트식 6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높을수록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개의 하위개념인 ①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개인의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인 자신감, ②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같은 자기 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조절 효능감, ③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선택하려고 하는 과제난이도 선호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Cronbach's $\alpha = .77$ 였다.

(3) 미디어 능력

미디어 능력이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제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Baacke, 1996; 강진숙, 2005a). 미디어 능력의 범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디어 평가(비판/비평 범주), 미디어 지식, 미디어 이용, 미디어 구성/제작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능력에 관한 선행연구(Baacke, 1996; 1998; 강진숙, 2005a, 2005b)와 자기 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Bandura, 1986, 1997; 김아영·박인영, 2001; 박병기·채선영, 2005)를 근간으로 “나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잘 찾는 편이며, 인터넷 북마크 관리를 잘하는 편이다”, “나는 다양한 미디어프로그램(EBS 프로그램,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관심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수용자를 키워내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나는 인터넷상의 게시판을 이용한 토론에 자주 참가하는 편이다”, “수업과정에 어려운 문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주도적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제작 및 운영을 하는 편이다”, “나는 항상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폰과 캠코더 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주위 환경의 모습을 영상 또는 사진으로 담으려고 노력한다”라는 7문항을 통해서 5점 척도로 미디어 능력을 조사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 척도의 평균값($M=3.25$, $SD=.68$)으로 미디어 능력 지수를 구성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3$ 였다.

(4) 학업성적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10점 척도 학생들의 성적수준을 평가($M=5.69$, $SD=2.19$)하였다(1: 하위권, 10: 상위권). 주요 선행

연구를 통해서 학업성적은 준거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김아영·차정은, 2003; 김아영, 2004; 이명자·송영명, 2005; 이응규·이종기, 2006).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성별, 학년, 소득 등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과 측정요인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효능감과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요인분석 및, enter 방식의 선형관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화 회귀계수(standardized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Tabachnick & Fidell, 2001). 회귀모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상점(outliers)²⁾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요인들은 동질적인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변수들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크론바하의 알파계수(Cronbach's α)를 계산하였다.

4. 분석결과

1)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유형

<연구문제 1>은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교육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28개의 설문을 측정하였으며, 페리맥스 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행하였다. 설

2) 이상점(outliers)이란 회귀모델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Control Target.으로 이것을 탐지하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점의 탐지에는 잔차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표준화잔차(standardized residual)의 절대값이 2.5에서 3 이상이면 그러한 개체를 이상점으로 간주한다(서혜선 외, 1999). 본 연구에서는 2.5 이상을 제거하였다.

문지에서 사용한 이용 동기 진술문들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KMO 측정(Ksiser-Meyer-Olkin Measure)을 실시하였다. KMO 측정을 실시한 결과, KMO 측도 값이 0.892로 나타나 매우 높았으며, Barlett의 구형성검정치(test of shpericity) 카이스퀘어 값이 6313.70(df=378, p=.000)로 99% 수준 이상에서 이 진술문들이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분석되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이겐 값 1이상의 요인만을 추출하였다. 총 7개의 요인 군으로 요인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1>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요인분석

요인명	평균값 (n=696)	요인 적재량	아이겐 값	분산(%)	Cronbach's α
요인 1: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다른 수업보다 편리함	3.56	.569	3.133	11.19	.805
학업성취 도움	2.93	.682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방식	3.62	.579			
생활과 밀접한 수업	3.37	.559			
시간과 비용 절감	3.19	.499			
쉽게 이해	3.32	.704			
특정학문 전문 지식습득 도움	3.15	.544			
요인 2: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정보/지식습득	3.54	.774	2.498	8.92	.773
새로운 교육방법 체득	3.33	.556			
많은 정보 획득	3.79	.808			
호기심	3.71	.644			
요인 3: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학생 개성을 키움	3.04	.534	2.389	8.53	.746
주입식 교육방식 해결	2.99	.500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원활	2.82	.767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원활	3.15	.760			
요인 4: 능력향상 추구					
믿을 만한 정보 획득	3.23	.441	2.384	8.51	.735
지적 욕구 충족	3.06	.473			
창의력 증진	3.12	.807			

학생 사고능력 향상	3.11	.799			
요인 5: 자율적 교육 추구					
학습시간과 장소 제약 덜 받음	3.39	.642	2.291	8.18	.723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2.97	.629			
학생 스스로 학습진도조절	3.03	.763			
요인 6: 시대 편승 추구					
교양 쌓기	2.94	.675	2.023	7.23	.718
실용적 정보/지식 습득	3.65	.747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3.85	.522			
요인 7: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남과 다른 교육 서비스	3.08	.772	1.854	6.82	.701
전문 지식	3.37	.501			
다양한 매체 수업	3.67	.575			
총분산			59.18%		

요인 1의 경우, ‘다른 수업보다 편리함’, ‘학업성취 도움’,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방식’, ‘생활과 밀접한 수업’, ‘시간과 비용 절감’, ‘쉽게 이해’, ‘특정학문 전문 지식습득 도움’의 변수들로 묶여져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8052이었으며, 11.19%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2의 경우, ‘새로운 정보/지식습득’, ‘새로운 교육방법 체득’, ‘많은 정보 획득’, ‘호기심’의 변수들로 묶여져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73이었으며, 8.92%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3의 경우, ‘학생 개성을 키움’, ‘주입식 교육방식 해결’,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원활’,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원활’의 변수들로 묶여져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46이었으며, 8.53%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4의 경우, ‘믿을 만한 정보 획득’, ‘지적 욕구 충족’, ‘창의력 증진’, ‘학생 사고능력 향상’의 변수들로 묶여져 “능력향상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35이었으며, 8.51%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5의 경우, ‘학습시간과 장소 제약 덜 받음’,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 ‘학생 스스로 학습진도조절’의 변수들로 묶여져 “자율적 교육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23이었으며, 8.18%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6의 경우, ‘교양 쌓기’, ‘실용적 정보/지식 습득’,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의 변수들로 묶여져 “시대 편승 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18이었으며, 7.23%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요인 7의 경우, ‘남과 다른 교육 서비스’, ‘전문 지식’, ‘다양한 매체 수업’의 변수들로 묶여져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값은 0.701이었으며, 6.82%의 분산 설명력을 나타냈다.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을 편리하고 수업에 도움이 되며, 교육방법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수업의 형태로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였다.

2)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와 효능감

<연구문제 2>는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동기만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개의 동기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결국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는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동기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을 새로운 지식과 교육을 제공받는 수업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사려된다.

다음으로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에는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정보/교육

<표 2>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Sig
학업적 자기 효능감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084	1.622	.105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075	1.577	.115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069	1.482	.139
	능력향상 추구	.012	.238	.812
	자율적 교육 추구	.073	1.649	.100
	시대 편승 추구	.038	.820	.412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114	2.398	.017
F			10.74**	
Adjusted R ²			.10**	

** p<.01

<표 3>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와 미디어 능력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Sig
미디어 능력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275	6.255	.000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185	4.628	.000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125	3.147	.002
	능력향상 추구	.001	.014	.989
	자율적 교육 추구	.085	2.262	.024
	시대 편승 추구	.083	2.133	.033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063	1.556	.120
F			49.29**	
Adjusted R ²			.35**	

** p<.01

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자율적 교육 추구', '시대 편승 추구' 순으로 미디어 교육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향상 추구'와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동기를 제외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미디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성적 관련 분석

<연구문제 3>은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율적 교육 추구’와 ‘새로운 지식/교육추구’만이 미디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디어 교육을 자율적이고 새로운 교육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학업성적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사려된다.

<연구문제 4>는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이 학업성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미디어 능력’과 ‘학업적 자기 효능감’ 모두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표 4>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와 학업성적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Sig
학업성적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019	.345	.730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061	1.224	.221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030	.617	.537
	능력향상 추구	.032	.606	.545
	자율적 교육 추구	.110	2.361	.019
	시대 편승 추구	.030	.628	.530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101	1.893	.041
F			2.27**	
Adjusted R ²			.02**	

** p<.01

<표 5> 효능감과 학업성적에 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t	Sig
학업성적	미디어 능력	.117	2.878	.004
	학업적 자기 효능감	.228	5.618	.000
F			32.28**	
Adjusted R ²			.09**	

** p<.01

것으로 나타났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 그리고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미디어 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어느 정도 성적 중심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효능감뿐만 아니라 미디어 능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유형에 관한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능력향상 추구’, ‘자율적 교육 추구’, ‘시대 편승 추구’,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순으로 이용 동기가 도출되었다.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이기 때문에 TV시청동기와 다른 미디어(VCR, 인터넷, 휴대폰 등)와는 다른 이용 동기를 보였다(Becker, 1979; Palmgreen, Wenner, & Rayburn, 1980; 김유정, 2005; 김정기, 1995; 박종민, 2003).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고등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의 의미를 새로운 수업, 의사소통, 자율적 교육 등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또한 수업 편리성, 도움, 정보습득 등 기본 수업의 보조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을 기존 공교육의 대안적인 수업형태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두 번째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우선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서는 7개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 중에서 ‘새로운 지식/교육추구’ 동기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용성과 유용성 차원에서 이용 동기가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이용규·이종기, 2006). 다음으로 미디어 능력에는 ‘수업 편리성/도움 추구’, ‘정보/교육방법 습득 추구’, ‘새로운 수업/의사소통 추구’, ‘자율적 교육 추구’, ‘시대 편승 추구’ 등 5개 동기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디어 교육은 대체로 학업적 차원의 효능감 함양에는 새로운 지식과 교육 차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함양에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자율적 교육 추구’와 ‘새로운 지식/교육추구’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교육의 유용성 차원의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유사하게 새로운 지식과 자율적 교육 특성만이 학업성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에 관한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학업적 자기 효능감’, ‘미디어 능력’ 순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선행 연구와 같이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ndura, 1997; Shunk, 1985; 이용규·이종기, 2006; 추미애·박아청, 2006), 미디어 능력 역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였다. 결국, 학업적 차원의 효능감이 미디어 능력보다는 학업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미디어 교육을 주요 수업의 보조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지만, 기존 수업과는 다른 대안적 수업(새로운 수업/의사소통, 능력향상)으로서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교육이 학생들의 미디어 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향상에서는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디어 교육은 학업성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미디어 능력은 보다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중등교육과정

이 입시교육 중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디어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들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디어 교육이 아직까지 학교 교육의 틀 내에 체계화된 것이라기보다는 교과 접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입시과목이 축소되고, 특정과목을 선택하여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교육환경에서 미디어 교육은 특별활동 또는 재량수업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교육 선진국처럼 한국의 공교육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 현실상 미디어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평생교육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공교육이 단순한 학습기관을 뛰어넘어서 청소년(중·고등학생)들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식이 추구되어야 한다.

영상세대인 청소년들은 미디어에 매우 친숙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심도 많고 다양한 미디어활용 능력도 뛰어나다. 미디어 교육은 청소년들에 부합하는 수업중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학업의 능력을 함양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다양한 능력(지식, 이용, 비판, 제작 등) 증대시킬 수 있는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 중등교육과정에 미디어 교육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 교육 내에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공교육의 틀 내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 연계된 미디어 활용이나 미디어 교육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제기되는 미디어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교과 교육과 미디어 교육의 연계는 과목별 학습내용과 수업의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가운데, 개별 교과에서 뉴스, 대중가요, 영화 등 다양한 미디어 텍스트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교육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미디어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개별 교과 교육과 미디어 교육이 통합적인 형태로 실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문방송학분야에서 이루어진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미디어 교육 확립과 확대를 위해서 미디어 교육에 관한 포맷과 체제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미디어 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서

실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교육 실태와 현황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체계적인 실증적인 서베이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Ⅰ 참고문헌

- 강진숙 (2005a).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측정 사례 연구: 독일의 연방 프로젝트 “학교를 네트워크로(Schulen ans Netz)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3호, 52~79.
- _____ (2005b). 미디어 능력의 구성범주에 대한 연구: 독일 공영방송의 미디어 능력 개발 사례에 대한 세부적 특성화 및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6호, 5~35.
- 김명숙·정대련·이종희 (2002). 과학영재의 창의성, 환경, 그리고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23권 3호, 91~108.
- 김아영 (2002).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른 학습동기 유형 분류체계의 타당성. 『교육심리연구』, 제16권 4호, 169~187.
- _____ (2003). 교실에서의 동기. 『교육심리연구』, 제17권 1호, 5~36.
- _____ (2004). 자기 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연구』, 제16권 1호, 1~38.
- 김아영·차정은 (2003). 교사 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제17권 2호, 25~43.
- 김양은 (2005). 미디어 교육의 개념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8권, 1~34.
- 김유정 (2005).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3호, 291~318.
- 김정기 (1995). 대학생 수용자의 텔레비전 시청동기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5권, 37~70.
- _____ (1998). 청소년 시청자의 텔레비전 시청행태와 효과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3권 1호, 76~114.
- _____ (2002). 어린이 시청자의 도구적 시청과 관습적 시청경험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6권 3호, 168~206.

- 류지현·김민정·고기정 (2005). 기업 이러닝에서 학습자가 지각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정보미디어연구』, 제11권 4호, 191~220.
- 문혜성 (2003).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른 미디어 교육의 방안과 교육기관 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제1차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교육 심포지엄.
- 문혜성 (2004). 『미디어 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박광순 (2006). 이러닝(E-Learning) 이용 동기와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19권, 5~40.
- 박병기·채선영 (2005). 학업수행 자기 효능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제18권 4호, 1219~1240.
- 박종민 (2003). 휴대전화, 인터넷, 텔레비전의 미디어 속성 차이와 이용 동기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7권 2호, 221~251.
- 배진한 (2002). 전화의 이용과 충족 그리고 대인매체로서의 전화의 속성-이동전화, 면대면 채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8권, 131~165.
- 소연희·김성일 (2005). 문제중심학습 상황에서 문제특성, 자기 효능감 및 평가유형이 흥미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제19권 1호, 205~221.
- 신동료·서길주 (2001). 교사의 교정적 피드백이 자기 효능감 향상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정연구』, 제19권 1호, 319~342.
- 신종호·신태섭 (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 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제15권 1호, 5~23.
- 염시창·박현주 (2005). 일반계 여고생의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시험불안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2권 1호, 19~35.
- 원용진 외 (2003). 『미디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언론재단.
- 원용진 (2005). 미디어 교육의 이념과 현실정책. 김기태 외. 『학교로 간 미디어』. 다할미디어.
- 은혜정·나은영 (2002). 인터넷에서 추구하는 충족과 획득된 충족 및 이용행동 간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46권 3호, 214~251.
- 이명자·송영명 (2005). 자기조절학습전략, 자기 효능감 및 학업성취도 수준에 따른 학업적 동기와 자기평가의 차이. 『중등교육연구』, 제53권 1호, 85~104.
- 이석용·서창갑·김유일 (2006). 개인의 e-Learning 수용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제15권 2호, 49~75.

- 이용규·이종기 (2006). e-Learning에서의 학습환경과 학습자 자기 효능감이 학습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제16권 1호, 1~21.
- 이인희 (2001). 대학생 집단의 휴대폰 이용 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제15권 3호, 261~293.
- 이정규 (2005). 대학생의 창의성과 작업선호도 및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제19권 2호, 413~432.
- 이정춘 (2005). 『미디어 교육론: 미디어 시대에 살다』. 집문당.
- 이주하·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제19권 1호, 311~325.
- 장윤옥 (2005). ICT활용 수업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에 따라 가정과 학업성취와 자원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43권 1호, 225~241.
- 추미애·박아청 (2006). 초등학생의 자기 효능감과 학습동기 및 학교적응 간의 관계. 『아동교육』, 제15권 2호, 271~288.
- 한상필·안보섭·박명진 (2005).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모바일광고 이용 동기에 관한 인식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제13권 4호, 69~101.
- 홍정림·최은경 (2002). 과학과 수행평가에 관한 중등학생의 인식 및 자아효능감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22권 2호, 230~239.
- Aufenanger, S. (1997). Medienpädagogik und Medienkompetenz-Eine Bestand-saufnahme. In Enquete-Kommission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Deutscher Bundestag (Hrsg.). *Medienkompetenz im Informations-zeitalter*. S.15~22. Bonn.
- Baacke, D. (1996).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Reichweite und Fokussierung eines Begriffs, der Konjunktur hat. In: *medien praktisch*, 20. Jg., Heft 7/8, 1996, 4~10
- _____ (1997). *Medienkompetenz*. Tübingen: Niemeyer.
- _____ (1999). Medienkompetenz: Theoretisch Erschließend und Praktisch Folgenreich. In: *medien + erziehung*. v.43, n.1. 1999. pp.7~12.
- Bandura, A (1976). Self-Reinforcement: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Behaviorism*, Vol.4, 135~55.

- _____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_____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W. H. Freeman and Company.
- Becker, L. B. (1979). Measurements of Gratific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6, 54~73.
- Blumler, J. G. (1970). The Political Effects of Television. In J. D. Halloran (Ed.), *The Political Effects of Television* (pp.68~104). London: Panther.
- Collins, J. (1982). Self-Efficacy and Ability in Achievement Behaviour. Paper Presented in March,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New York.
- Conway, J. C. & Rubin, A. M. (1991). Psychological predictors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 *Communication Research*, 18, 443~464.
- Dichanz, H. (1998). Medienforschung, Medienerziehung und Medienkompetenz. In H. Dichanz (Hrsg.). *Handbuch Medien: Medienforschung*. Konzepte, Themen, Ergebnisse. Bonn.
- Habermas, J. (1971). Vorbereitende Bemerkungen zu einer Theorie der Kommunikativen Kompetenz. In Habermas, J. & Luhmann, N. (Hrsg.). *Theorie der Gesellschaft oder Sozialtechnologie*. Frankfurt/M. 10. Aufl. 19.
- Heller, U., von Kortzfleisch, H. F. O. & Winand, U. (1999). Medienkompetenz. In Szyperski, N., *Perspektiven der Medienwirtschaft: Kompetenz-Akzeptanz-Geschäftsfelder*, Lohmar, Köln S.37~50.
- Kurtz, B. E., & Borkowski, J. G. (1984). Children's meta-cognition: Exploring relations among knowledge, process and motivational variabl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37, 335~354.
- Palmgreen, P., Wenner, L. A. & Rayburn, J. D. (1980). Relations etween Gratifications Sought and Obtained: A Study of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7, 161~192.
- Perse, E. M. & Courtright, J. A. (1993). Normative. Images of Communication Media: Mass and Interpersonal Channels in the New Media. Environmen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9(4), 485~503.
- Perse, E. M. & Ferguson, D. A. (2000). The Benefits and Costs of Web Surfing. *Communication Quarterly*, 48(4), 343~359.

- Rubin, A. (1983). Television Uses and Gratifications: The Interactions of Viewing Patterns and Motivations. *Journal of Broadcasting*, 27, 37~51.
- Rubin, A. M. (1981). An Examination of Television Viewing Motivations. *Communication Research*, 8, 141~165.
- Rubin, A. M. & Perse, E. M. (1987). Audience Activity and Soap Opera Involvement: A Uses and Effects Investigation.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4, 246~268.
- Schorb, B. (1997). Medienkompetenz. In J. Hüther, B. Schorb & C. Brehm-Klotz (Hg.), *Grundbegriffe: Medienpädagogik* (pp.234~240), München.
- Schunk, D. (1985). Self-Efficacy and Classroom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22, 208~223.
- Schunk, D. H. (1982). Effects of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on Children's Perceived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4, 548~556.
- Smith, E. V., Wakely, M. B., de Kruijff, R. E. L. & Swartz, C. W. (2003). Optimizing Rating Scales for Self-Efficacy (and other) Research.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3, 1~23.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Tipton R. M. & Worthington E. L. (1984). The Measurement of Generalized Self-Efficacy: A Study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8(5), 545~548.
- Winterhoff-Spurk, P. (1997). Medienkompetenz: Schlüsselqualifikatio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 *Medienpsychologie*, Vol.9, 182~190.
- Zimmerman, B. J. (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82~91.

(최초 투고 2006.11.29, 최종 원고 제출 2007.1.31)

A Study on the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Media Education Using Motive Effect in School Achievement

Focusing on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Media Competence

Jung-Chun Rhee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Eun-Gyoo Kim

Researcher

Communication & Cultur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Jin-Suk Kang

Professo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Sang-Ho Park

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is media education uses type of a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research about effect that is taking media education. Measured media education uses motivation, studies own effect academic self-efficacy, media competence and school achievement for this research.

As analysis result, priority media education uses motive was 'teaching convenience/help sought', 'Information/education method picking up sought', 'new teaching/communication thoroughgoing sought', 'ability elevation pursuit', 'self-regulating education sought', 'up-to-dateness sought', 'New knowledge/education sought' of order. By next time, only 'new knowl-

edge/education sought' motive caused positive effect in studies own effect among media education uses motive. Among media education uses motive, 'teaching convenience/help sought', 'Information/education method picking up sought', 'New study/communication thoroughgoing sought', 'self-regulating education sought', 'up-to-dateness sought' motive caused positive effect in media competence. Also, it caused positive effect among media education uses motive 'self-regulating education sought' and 'new knowledge/education sought' in students' school achievement. Finally, 'academic self-efficacy' is 'media competence' more in school achievement influence. Media education influenced new teaching method and ability elevation to some students. But, academic self-efficacy and school achievement did not cause big effect students. However, media education influenced in some students' media competence elevation.

Key words: media education, academic self-efficacy, media competence, school achievement